

엘리야의 성공 승리 비결: 고독한 광야 체험

성경말씀: 왕상17:1-16

온 세상이 코로나 19 사태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당하고 있다.

어제 기독교일보 뉴스, 美 목회자 10명 중 9명 "종말의 때에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 응답, 미국 내 목회자의 10명 중 9명은 기독교 종말론과 관련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 예언했던 현상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고 미국 남침례교 계열 신문인 배티스트 프레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내슈빌에 위치한 라이프웨이연구소(Lifeway Research)는 올해 1월24일부터 2월11일까지 미국 복음주의권 및 흑인교회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은 목회자들에게 오늘날의 특정한 사건들을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국 목회자 4명 중 3명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일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설문에서 목회자의 97%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대로(literally) 그리고 개인적으로(personally)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목회자들 중 56%는 자신들의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9%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긴박함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목회자의 60%는 요한계시록과 구약성서에 나오는 종말의 예언에 대해 설교하는 것에 대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개인적으로 종말론을 연구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57%였다. 맥코넬이라는 분은 "현재 세계적인 팬데믹은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과 재난, 그리고 종말에 관하여 교회 성도들과 비신앙인들 사이에서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회자들이 느껴야 할 절박함은 화장지를 쌓아두는 일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이러는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회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존 맥아더 목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 설교하고 있다. 2개 슬라이드

(*)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다. (*) 더 큰 재앙이 지구에 닥친다.

한 마디로 온 세상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 종간 장벽을 뛰어넘는 이런 역병은 앞으로 계속 올 것이다.

고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늘 피폐한 광야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을 살펴보았다.

광야의 목적: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

모세와 이스라엘의 차이: 모세는 불평이 없다. 백성은 거의 날마다 불평한다.

왜? 모세는 이 일 전에 40년간의 미디안 광야 체험이 있었다. 결과: 빈 그릇이 되었다.

이번에 우리는 빈 그릇이 되는 광야 체험을 하고 이것을 기초로 다가오는 광야를 이겨내야 한다.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의 광야 체험기, <엘리야의 성공과 승리 비결: 광야 체험> 제목으로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 특별히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패배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살펴보려 한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주일학교부터 엘리야 이야기를 늘 들어왔다. 찬송가에도 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는가?

대개는 왕상 18장 이야기, 당시 왕국은 분열 상태, 북 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그의 아내는 이세벨, 이 부부는 지금도 평범한 미국 사람들까지 안다. 사악한 자들로

왕상16:30-33, 바알 숭배 도입, 가장 사악한 부부

바로 이때에 엘리야가 등장한다. 그는 얼마나 위대한가?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 여기에 솔로몬 이야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엘리야 이야기, 17장부터 왕하 첫 부분까지 여러 장이 엘리야 이야기
그가 한 일: 그는 대언자 시대를 열었다.

엄밀한 의미의 구약 시대: BC 1500년경 모세 율법 이후, 이 1500년을 보통 율법과 대언자들이라고
부른다.

율법은 모세, 대언자들은 엘리야로 대표됨

그래서 지난주 변화산상, 마17장 3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누가 함께 하나? 모세와 엘리야
왜? 구약 시대의 대표 인물, 신구약 성경의 대다수 기적들은 이 세 인물에 의해 일어남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무엇인가? 둘 다 광야의 사람이다.

엘리야의 갈멜 산 승리(18장)

엘리야 시대, 아합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인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음
드디어 엘리야와 아합이 마주침

아합의 말(17), 엘리야의 말(18)

우리가 대결을 하자. 바알의 대언자 450명,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19)

대결의 목표(21): 누가 하나님인지 알아보자. 증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24).

바알의 대언자들: 소리를 지르고 몸을 자해하고 해도 아무 응답이 없음(28)

드디어 엘리야 차례, 제단 주변에 물을 가득 붓고(35) 하나님께 기도(36-37)

이것이 믿음이다. 날뛰지 않아도 된다. 그 결과 불이 내려옴(38), (*)

백성의 응답(39)

바알의 대언자들 죽음(40)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피가 솟아오른다. 이 땅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내팽개치려는
인본주의자들, 동성애 지지자들, 차별금지법 제정자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받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알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더욱이 하나님이 이때에
불까지 보내셔서 이들을 심판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말씀: 마13장 그대로 두라. 눅9:54, 사람을 구하러 오셨다(55-56).

여하튼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굉장한 일을 수행하였다.

그의 제자 엘리사의 소원: 두 배의 영을 구함(왕하2:9)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고 세상을 살기 원함, 침례자 요한(눅1:17)

오늘은 엘리야의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려고 함

광야의 사람 엘리야

사역의 성공과 승리를 담은 왕상 18장은 17장 다음에 온다.

즉 그의 성공은 18장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8장에서 불을 떨어뜨리기 전에 그는 17장에서 고독하게 광야의 체험을 하였다.

다시 말해 17장의 준비가 없다면 18장의 승리는 기대할 수 없다.

사역의 시작부터, 혹은 인생의 시작부터 18장의 승리가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사역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하려면 먼저 17장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까마귀가 다시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것, 기름병의 기름이 내일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루 통의 가루를 굶어서 하루하루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러는 가운데 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합 같은 저런 악한 자를 그대로 두실까 이상히 여기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우리나라의 상황도 동일함
성경의 인물이든 세상 역사의 인물이든 위대한 사람은 거의 다 홀로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광야의 시간을
가졌다.

어떻게: 홀로 지내는 것을 통해

왕상17:1-6, 디셉 사람 엘리야(1),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심

그리고는 온 땅에 기근을 보내심: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 심판

1절: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없다.

요르단 건너편 그릇 시내 근처의 광야로 가서 기거하라(3).

(*) 까마귀가 아침에 빵과 고기를 가져옴(6).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이 넘치는 인물 이런 엘리야가 까마귀에 의존하는 신세가 됨, 그것도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 위에서 광야에 홀로 있는 자기의 사역자를 내려다보고 있음

당시 엘리야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더 좋은 빵, 더 시원한 물을 먹고 마시려는 욕망 아니다. 혼자 지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창2:18)

(*)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매일 바위틈에 혹은 굴속에 홀로 기거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신문, 인터넷, 방송이 없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힌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말 그대로 그는 nothing이 되었다.

수치와 치욕 그리고 고독, 이것 외에도 삶이 심히 단조로웠다. 창2:18

무언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거하라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다.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하루 이틀이면 기적 감사 그런데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무와도 이야기할 수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다.

그런데 하루는 시냇물이 말라 버린다(7).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다른 데로 보낸다. 이 정도를 견뎠으면 이제는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아니다. 그를 사렙다(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고 거기서 여전히 기다리게 하신다(8-24).

과부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이번에 그는 이 두 사람을 섬긴다.

시돈의 사르밧 혹은 사렙다, 이방인들의 도시, 과부 여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번에 그는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

이들은 부자가 아니다. 엘리야의 말: 빵과 물을 가져오라(10-11). 여인의 말(12), 가루 한 움큼, 소량의 기름, 나뭇가지 2개,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었다. 피폐하다. 비천하다.

그래서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체험하게 됨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움

왕상 17장의 광야 체험

1.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 아합은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함(18:10)

그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광야에 홀로 거하는 것

2. 하나님은 심지어 까마귀를 시켜 그에게 음식을 제공함, 과부의 기름 병과 가루 통이 고갈되지 않게 하심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이스라엘 백서의 만나와 같다.

죽을 것 같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죽을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3. 이것을 통해 그를 위대한 대언자로 예비하심

18장에는 아합이라는 무서운 왕, 8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 거짓 대언자들

어떻게 이들 앞에 서서 믿음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 모세처럼 빈 그릇이 되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기 원한다.

사역의 승리와 성공 척도

드디어 18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

비가 내리게 한다.

우리는 대개 이런 것을 바라며 기도한다, “주여, 주여...” 나도 원한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생기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지 말고 표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 . 광야를 통해 이것을 배워야 인생의 모든 광야를 이길 수 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왜? 광야는 앞으로 매일 올 것이므로

광야를 거치고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 19로 절망하는 분들, 병, 실직, 구직, 경제, 가정...

암 등으로 투병하는 분들

나라의 앞날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

4.15 총선 잘못되면 어찌나, 애타게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나도 같이 울고 싶다. 이렇게 무지할까?

엘리아가 살던 시대다 그러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
자유를 버리고 속박의 길, 친중 반미, 종북 하고 있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이 광야의 때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까마귀를 매일 보내신다. 가루 통과 기름 병이 고갈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나는 빈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쓰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한다.

북한 땅이 자유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